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22호 2004년 6월 4일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30~32 / FAX.042-472-3264

## 구조조정펀드 1천억원 조성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M&A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300억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1,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한다.

이번에 결성될 조합은 한국기술투자의 KTIC5호 조합, 산은캐피탈의 KDBC-대우증권1호조합, 신한캐피탈의 신한3호조합, 코아기업구조조정의 CFAG8호 조합, CNI Network의 CNI9호조합 등 총 5개이며, 출자를 신청한 12개 조합을 대상으로 회사역량, 구조조정 지원시스템, 출자조합 운영전략 등에 대해 1, 2차 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8월말까지 조합결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합 선정에는 구조조정시장에서 민간 구조조정조합의 관심이 비교적 적은 비공개, 부품 소재,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M&A를 주로 지원하는 펀드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구조조정회사간의 경쟁을 통한 조기결성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자금 출자 규모의 1.5배를 선정했다.

올해에는 대외적 신인도가 높은 구조조정전문회사(신기술금융사 및 창투자 겸업)가 다수 참여함으

로써 최근 다소 위축된 구조조정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정자금 1524억원을 토대로 28개 구조조정조합을 결성, 총4895억원 규모 자금을 조성하여 76개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중 14개 조합이 해산(청산중인 조합 포함)하여 평균 14.4%의 수익률을 올렸다.

▶ 창업벤처국  
벤처진흥과  
(042-481-4422)

## 2008년까지 중소기업기술연구회 100개 육성

중소기업청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기술연구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 및 관련기관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사례 발표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정밀 비구면 렌즈 기술연구회’의 현동훈 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등 참석자들은 중소기업기술연구회사업의 확대 실시와 성과가 우수한 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Post 기술연구회 구성 등을 건의했고,

허범도 중기청 차장은 답변을 통해 “중소기업기술연구회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매년 20여개 연구회를 선정, 오는 2008년까지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연구회는 대학, 연구기관,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기술클러스터로 공동 기술개발, 기술 및 정보교류, 해외 기술동향 파악, 기술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14개, 올해 12개 연구회가 선정됐고, 선정된 연구회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구개발비의 75% 범위내에서 연 2억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이날 성공사례 발표에서는 ‘공기청정기술연구회’(이재근 부산대 교수) 및 ‘신생혈관 형성억제 펩타이드의 구조 결정 및 lead Compound 합성 연구회’(배은희 리젠바이오텍 대표) 등이 기술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 기술지원국  
기술정책과  
(042-481-4433)

# 2004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평가 실시

- 2,000여업체를 대상으로 6월 중 실시 -

중소기업청은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위해 2004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6월 1일부터 약 한달 여 동안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 의뢰해 실시될 예정인 이번 조사대상은 중소기업 1700여개사, 대기업 200여개사, 주한 외국기업 100여개사 등 총 2000여개사이며, 조사자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정보화 의지, 정보화 환경, 시스템 구축, 활용수준 등 4개 분야이며, 정보화 추진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을 조사하여 평가한 결과, 100만점을 기준으로 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49.22로 2002년 48.6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나 대기업(70.37)의 69.9%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2002년 대기업(66.0)의 73.6%인데 비해 낮아져 정보화 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보화 추진조직 및 인력, 교육 등을 위한 투자를 평가한 정보화 추진환경은 대기업의 51.86%에 불과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번 조사의 설문서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정보화

경영원(www.kimi.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기술지원국  
기업정보화과  
(042-481-4406)